

스리그미-

2026
NO. 5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22절



교회풍경 | 송미리 집사





우리가 꿈꾸는 교회

글 | 장진규 담임목사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맡기신 방향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를 세우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1. 예배의 감격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만남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은 무엇일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새롭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 이 땅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2. 함께 배우고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세워가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강좌와 교리 교육, 그리고 다양한 훈련과 양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제자란 단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목장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는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어른을 공경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뿌리가 깊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외롭고 지친 노년의 삶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미취학 아이들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반복적인 말씀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0-40대 공동체에게 교회가 쉼과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삶 속에서 지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이웃과 열방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의 비전은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순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훈련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 가며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촌새순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진규목사

특별새벽 기도 소감문

글 | 방미영 권사



매년 새해마다 교회에서는 '특별새벽기도회'의 통과예례의 시간을 갖는다. 매일은 주어지고 같은 일상을 반복하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분 안에서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아 더 풍성한 은혜, 더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며 고통의 걸림돌이 축복이 되기를,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해석되기를, 결국엔 아버지 나라에 그 분의 자녀로 굳건히 심겨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목사님은 새해를 여는 그 귀한 선물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찾으셨다.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허다허다한 아주 오래 전 태고의 시작의 출발점에 관한 말씀이니, 개인적으로도 설레고 숨죽이는 기대가 있다. 중국은 태고에 반고(盤古)라는 존재가 있어 자신이 자고 있던 엉겨져 있는 우주의 껍질을 깨서 천지가 생겨나게 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신체의 각 부위가 태양으로, 별로, 산과 나무 등 각각이 만물의 생명체가 되었다고 소개한다. 인간이 상상해내는 태초의 시작은 유치하며 인위적이고 조악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성경에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라고 선포하신다. 그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부언하신다. 이 얼마나 명료하고 당당하며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이며, 언어가 끊어진 말씀이신가 말이다. 이 천지창조의 선언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웃을테지만, 우리 자녀들은 머리 숙여 탄복하며 그 분을 받아들인다. '시작'을 수긍했으니 그 시작의 원인 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일이 남아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주어진 환경, 관계의 거미줄에서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며 또 어떻게 그 분의 뜻을 이해해야 할까?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과 관계의 축복과 고통을 그 분의 의지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까? 그리하여 우리의 결국 종착점은 어디며 나와 이 우주의 존재와 결말은 어떨까? 이 모든 질문의 출발은 말씀이시기도 한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생겨나고, 절대 선인 하나님과 대척되는 '악'의 존재로 말미암아 완전한 창조 세계에 균열과 결핍이 생기며, 고통받는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을 믿지만 우리의 낮은 차원의 영적 수준으로는 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에게 창6장은 그 일부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며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이해가 어려웠고 게으른 공부로 훗날을 도모해버리기 일쑤였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예배하는 '셋'의 후손이며,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가인의 후손임을 알려주셨을 때 난 유레카를 외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의 계보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어지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으로, 네피림으로, 세상의 용사로,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DNA에 녹아져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자각하여 소환해내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은밀한 비밀에 나도 참여자가 되며 관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며 흥분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자명해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언약에 성실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명령의 방식에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분의 언약을 믿으며 묵묵히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다. 온 맘 다해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 분의 임재로 위로와 축복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약속을 부여받은 아버지의 자녀이니, 그 놀라운 지위는 흔들릴 수 없으며 어떤 존재에게도 그 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순종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저축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간 언약에 절대 성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올려드리고 새해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도들의 삶에 말씀을 남기는 것이 기쁨, 박태희 목사님

글 | 조규라 집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요즘, 그 시작은 바로 이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있던 작년 12월 6일. 마지막까지 테이블, 화분 등 큰 물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일손을 보태던 낯선 이는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한 손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2월 7일 주일, 그 고마운 낯선 이는 우리 평촌새순교회에 부임하시는 부목사님으로 공식적으로 소개됐고, 이는 박태희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점잖고 조용한 모습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인 박 목사님을 인터뷰를 통해 속속 들여다봤습니다.

Q1 |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배경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삼촌의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설교를 흥내 내기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의 제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을 지나며 목회의 길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그 부르심을 외면하기도 했지만 이후,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Q2 |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과 이전 사역에 대해

약 7년간의 사역 초반에는 청소년부를 맡아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여정을 동행했던 시간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부를 섬기며 청년들과 예배하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특히 예배와 소그룹, 제자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이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말씀이 남고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목회자로서 큰 감사와 기쁨입니다.

Q3 | 평촌새순교회를 오시게 된 계기와 소감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느낀 것은 따뜻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밝은 얼굴로 맞아 주시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첫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도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하고 나누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Q4 | 사모님과의 러브스토리 / 가족소개

아내 서지은 사모는 제가 대학 청년부 목자로 섬기던 시절, 제 목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며 8년 가량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이로 지내다가 친구의 결혼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참 따뜻하고 귀한 자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지 기도하며 교제를 이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들 박태하가 있습니다.

Q5 | 목회 비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는 일에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저의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교회 가운데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일에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유내강형 MZ 사역자, 이다니엘 전도사님

글 | 박은진 집사



선하게 웃는 모습에 '청년부에 새로 온 청년인가?' 생각될 정도로 앳된 외모를 가진 '젊은 사역자', 바로 이다니엘 전도사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교인이라면 전도사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성경 속 '그 청년'을 떠올리게 될 텐데 역시나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소년미를 가진 사역자이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그야말로 '반전!'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팀으로 설 때면 진지하고 묵직한 담대함으로 예배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고 친근하지만 찬양과 말씀 앞에서는 힘 있게 중심을 잡는 사람. 부드러움 속에 굳건한 신앙을 품고 신앙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까지 지닌 '외유내강형' MZ 사역자, 이다니엘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Q1 | 사역의 길을 걷게 된 동기는?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성경 속 그 '다니엘'과 같아서 '어릴 적부터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자란 건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일반대학에서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군요. 저의 이름은 어머니의 태몽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꾸신 태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급히 가시기에, "어디에 가십니까 예수님?" 하고 물으니 "다니엘에게 간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제 이름이 '다니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대학 졸업 이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던 시간 속에서 결국 저를 가장 깊이 끌어당긴 것은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사람 곁에 머무는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Q2 | 평촌새순교회가 두 번째 사역지라고요?

평촌새순교회 부임 전에는 성남 지역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을 포함해 여러 역할을 순번제로 감당하며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청년부와 찬양 사역을 동시에 맡게 된 지금의 사역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 평촌새순교회의 첫인상은요?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인상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은 청년부의 분위기인데 예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은 처음 봤습니다 (웃음).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반가움과 동시에 제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Q4 | 가족 소개 해주세요

아내 조아름 사모와 아들 이에담까지 세식구입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연인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은 대학 3학년 무렵인데 이후 졸업과 군 복무라는 시간을 지나며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공대 출신인 저와는 달리, 조아름 사모는 국문학과 전공으로 글쓰기에 재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나 글을 쓸 때 아내에게 가장 많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Q5 | 전도사님의 목회 비전과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청년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내와 함께 고아원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이지만 언젠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장인·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의 구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유혹도 많고, 신앙을 뒤로 미루기 쉬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귀합니다.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시름하며, 예배로 회복해 가길 바랍니다."입니다

청년부, 스티그마, 주일 1·2부 찬양 인도를 하며 오늘도 부드러움과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다니엘 전도사님. 그의 사역과 비전, 소망을 위해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들

글 | 최미영 집사

올해도 어김없이 새순의 공동체에서는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유초등부와 청년부, 각각의 모양으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겨울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고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담당교역자와 교사들, 성도들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과 처음 만났지만 함께 기뻐 뛰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경배의 의미를 느끼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중고등부...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느끼고, 믿음의 대장으로 곳곳히 서기로 다짐한 유초등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혼신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며 서로 더 단단해지는 우정과 믿음을 가지기로 한 청년부... 각 부서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 하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겨울사역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는지 아래의 사진과 소감을 통해 새순의 지체들과 잠시나마 함께 누리보고자 합니다.

2026. 1. 22(목)-24(토)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 감사했고, 아이들에게 이 은혜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 공성호 강도사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 안진영 교사

김성경 목사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구걸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하신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수빈 학생



2026. 1.30(금)-31(토) 유초등부



'사도신경'을 주제로 활동했는데,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체육관에서 몸으로 말씀을 느껴보기도 했고, 교회에서는 '시타임머신'도 타고, 영어로 그리고 예배로 믿음을 고백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선호 목사

타임머신 고쳐 타고 즐겁게 여행하다 만난 반짝이는 보물, 사!도!신!경!

● 최은혜 교사

예수님의 갑옷 칼 방패에 대해 배워서 예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언니들이랑 선생님들이 잘 챙겨줘서 고마웠고, 신나게 놀고, 함께 교회에 있어 즐거웠어요.

● 오예나 어린이(3학년)

나는 이제 사도신경 마스터!!

● 조서현 어린이(3학년)

겨울성경학교 말씀 곳, 활동 곳!

● 고은후 어린이(3학년)

친구들이 많이 와서 좋았던 성경학교

● 김주호 어린이(3학년)

넓은 체육관만큼 믿음도 깊어진 행복한 시간 ♥

● 이다온 어린이(3학년)

사도신경, 이제는 나의 신앙고백

● 조서희 어린이(6학년)

유초등부 마지막 겨울성경학교, 너무 재밌었어요.

● 김주원 어린이(6학년)



2026. 2. 6(금)-8(주일) 청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 '거룩'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룩한 청년으로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다니엘 전도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며, 42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성철 부장집사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많았던 내 삶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임찬영 청년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새롭게 바뀐 점

글 | 박은진 집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진규 담임목사님 부임 이후 두 분의 새로운 사역자가 함께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의 예배 형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예배 입례송이 새롭게 개편되는 등 예배의 흐름에도 신선한 변화가 더해졌으며 교회 일부 공간은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들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달라진 모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담임목사님 말씀이 '쇼츠'로도 올라옵니다



요즘은 짧은 영상 콘텐츠, 이른바 '쇼츠'가 일상의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짧은 영상(쇼츠) 형태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2부 설교와 금요기도회 설교를 중심으로 핵심 말씀을 몇 개의 포인트로 압축해 편집해 게시하는 방식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자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교회 외관에 스피커 설치되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교회 외관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교회 앞을 지나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울리던 찬양이 교회 바깥 공간까지 이어지며 교회 주변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이들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가며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따뜻한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 교회 공식 인스타그램이 개설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리던 쇼츠 콘텐츠도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형태로 함께 공유하며 교회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빠르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회 소식, 예배 안내, 메시지 콘텐츠를 꾸준히 전달하며 소통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팔로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